



백두봉경

백두봉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국문출판사
주체111(2022)년

백두산





조선의 북변 량강도 삼지연시에는 조선에서 제일 높은 산인 백두산이 솟아있다.

백두산은 해발높이 2 750m로서 2 000만년전부터 땅속에서 용암이 분출하면서 생겨난 화산이다.

백두산마루에는 높이가 2 500m이상인 장군봉, 향도봉, 해발봉, 비루봉, 쌍무지개봉, 단결봉, 제비봉, 청석봉, 백운봉, 차일봉 등 높은 봉우리들이 둘러서있고 분화구자리에는 천지가 있다.

장쾌한 해돋이와 노을, 사시장철 천변만화하는 자연 경관을 펼치는 백두산은 그지없이 황홀하고 신비롭다.

백두산은 반만년 조선민족사의 발상지로서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으로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숭엄하게 솟아있다.

화첩에서는 조선민족의 넋이 깃든 백두산과 그 주변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가지 상식과 함께 보여주었다.

조종의 산 백두산



백두산은 자연미와 산악미, 자연경관으로 하여
이름높은 조선의 명산이며
조선민족의 뉘이 깃든 조종의 산이다.





백두산의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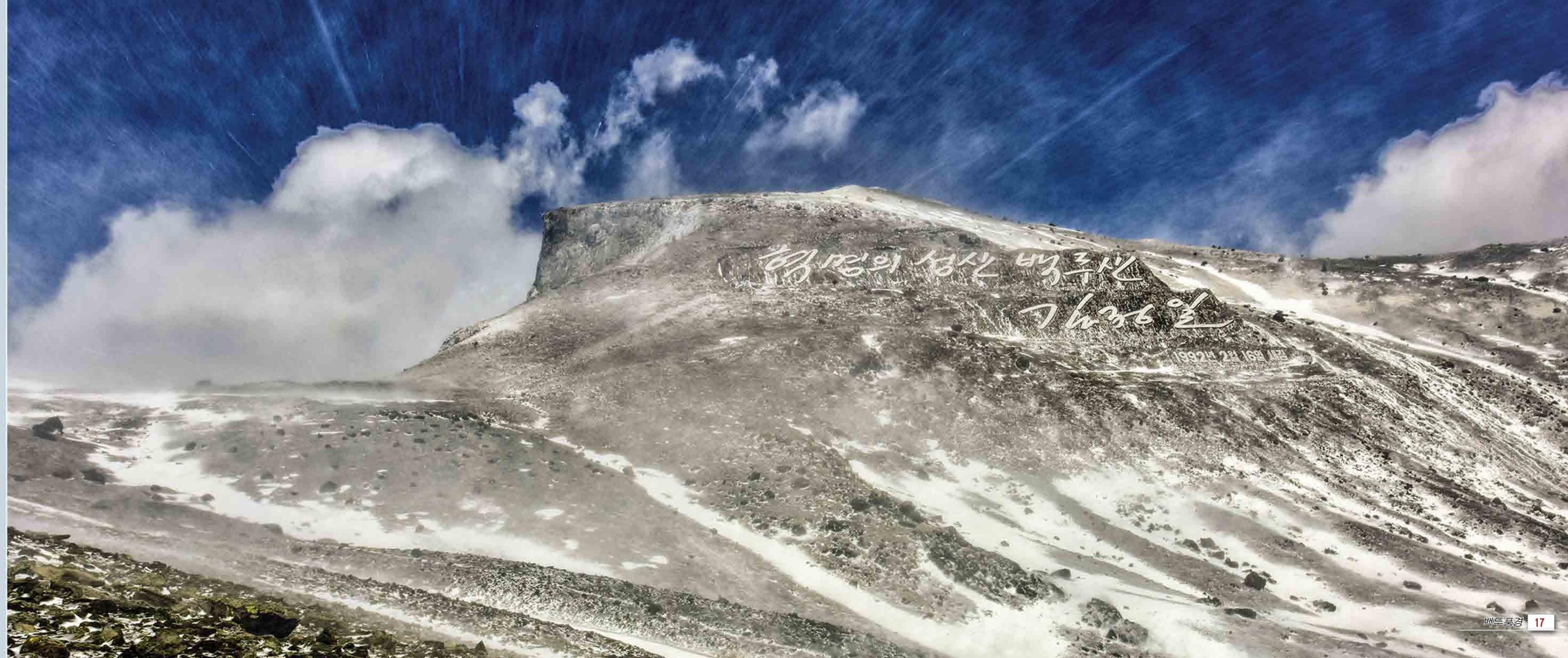
백두산에서 제일 높은
장군봉의 해발높이 2 750m



백두산정에서 바라본
백두대지의 아침



백두산의 향도봉에 새겨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친필글발 《혁명의 성산 백두산
김정일》





향도봉에 비긴 무지개



백두산의 눈바람

향도봉의 눈보라







서리꽃 핀 기암들





백두산정의 겨울





천지의 겨울바람

백두산의 저녁구름



사품치는
천지의 물결





백두광야의 저녁노을









눈석이계절



백두산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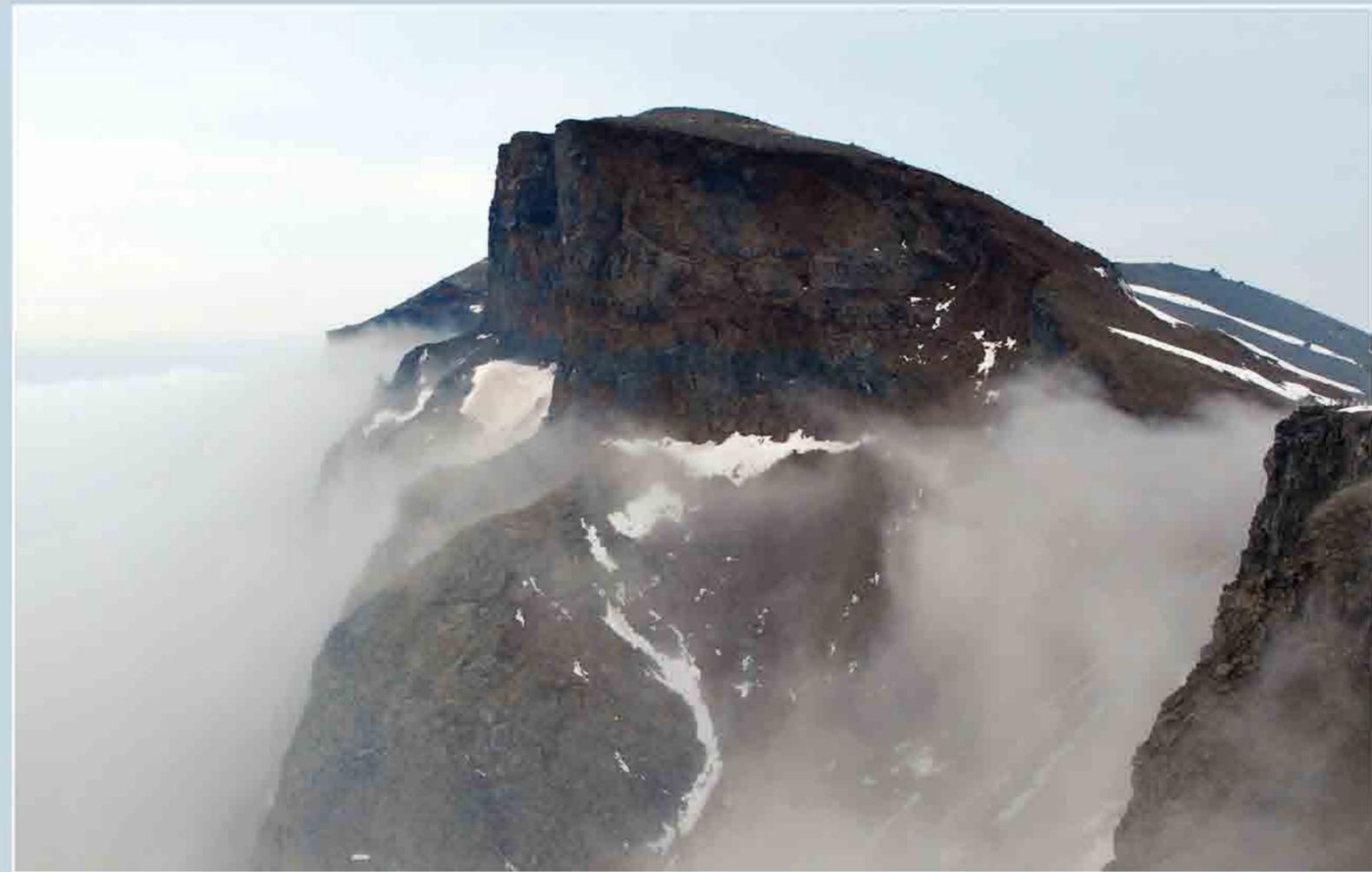


눈속에 핀 만병초



전지호반의 봄





구름우의 봉우리들



천지에서 바라본 향도봉과 장군봉, 비루봉





장군봉에서 바라본
향도봉





비루봉



해맞이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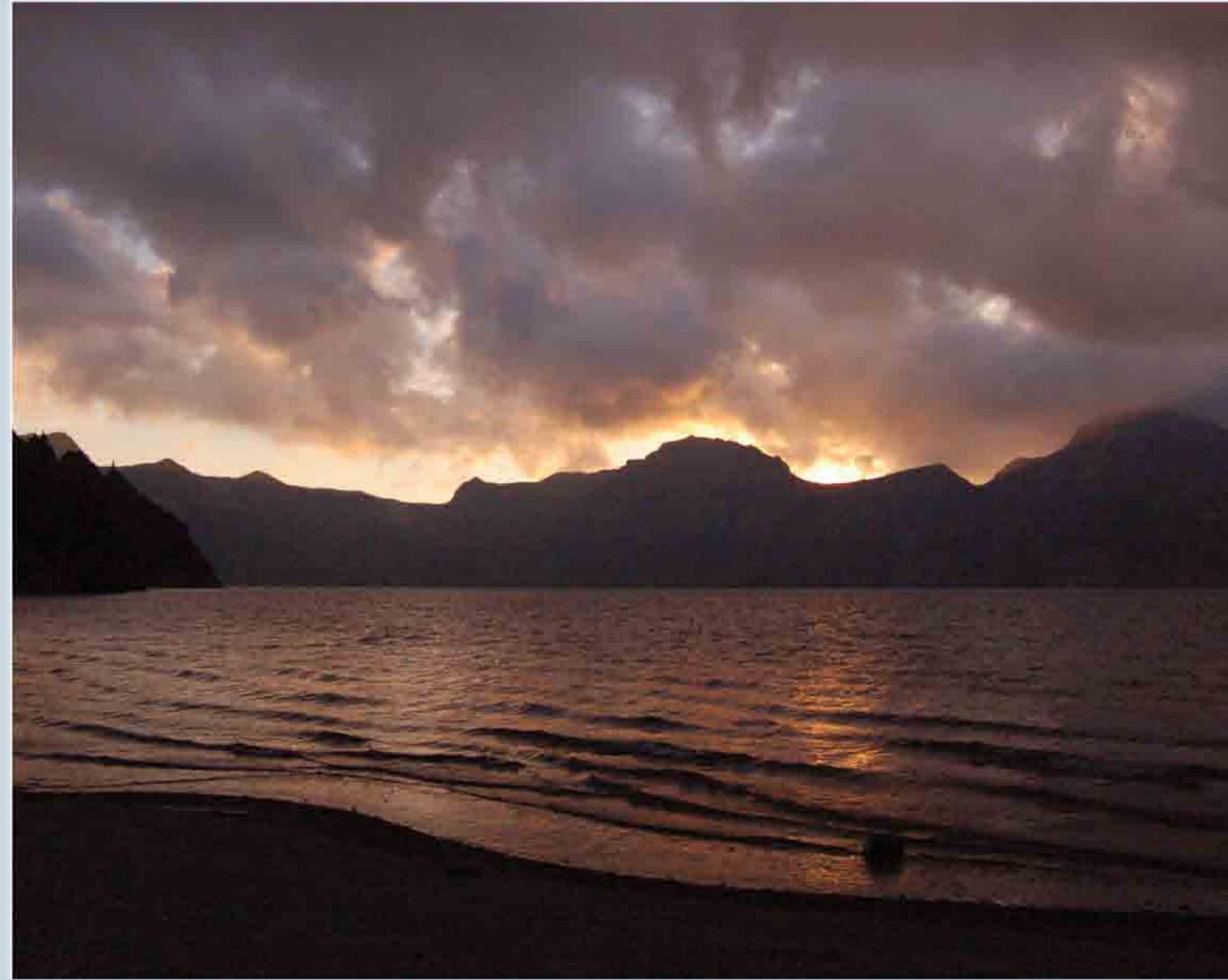


백두산정의 기암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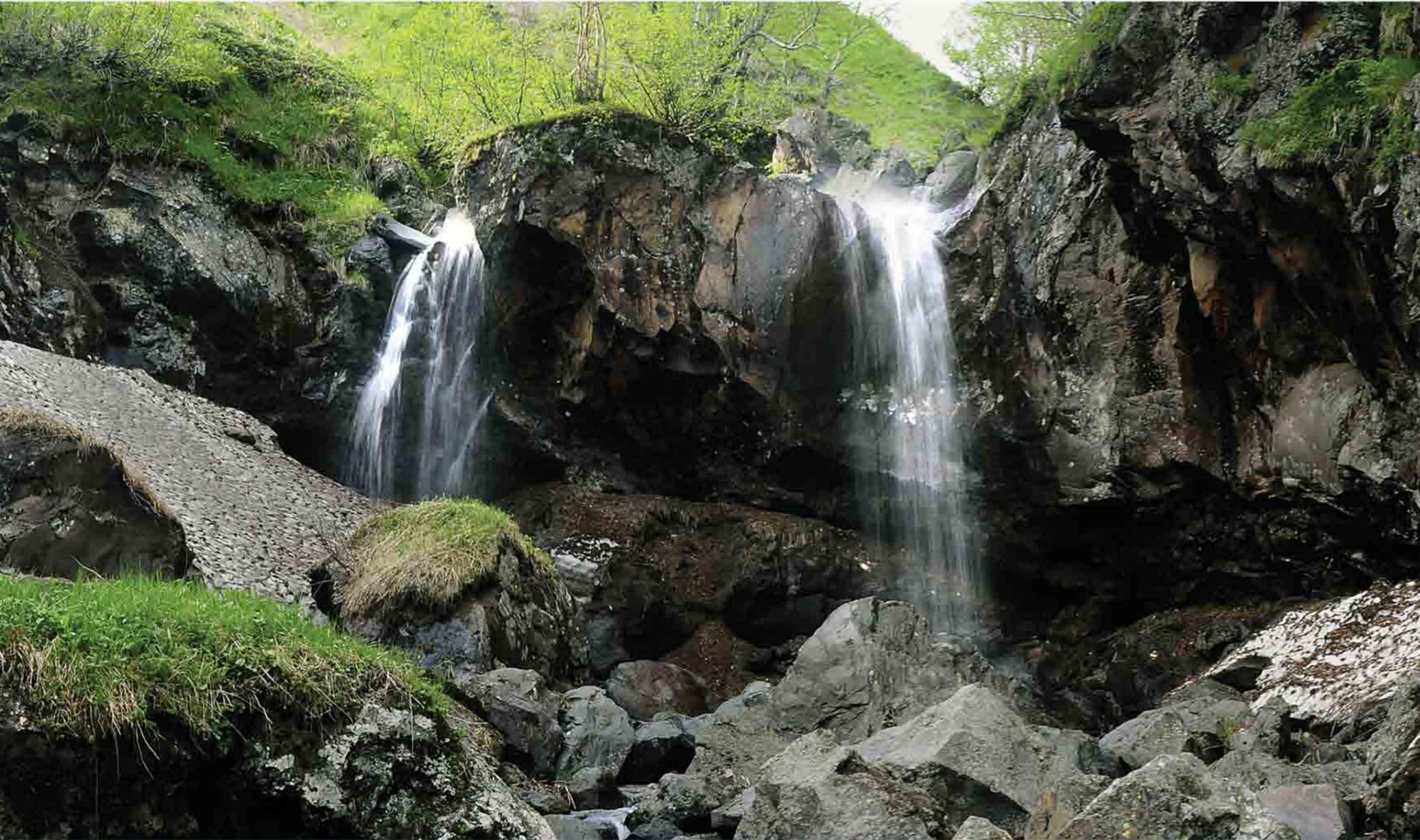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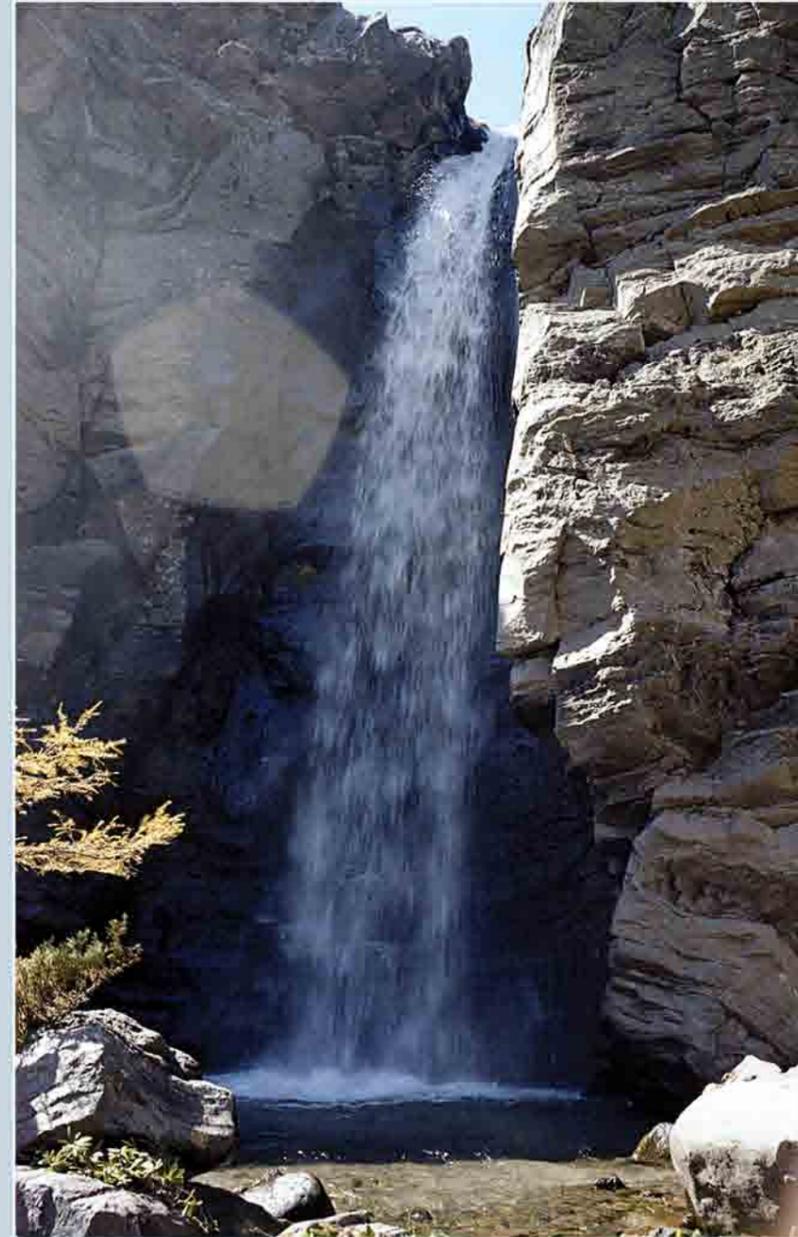
백두산정의 절벽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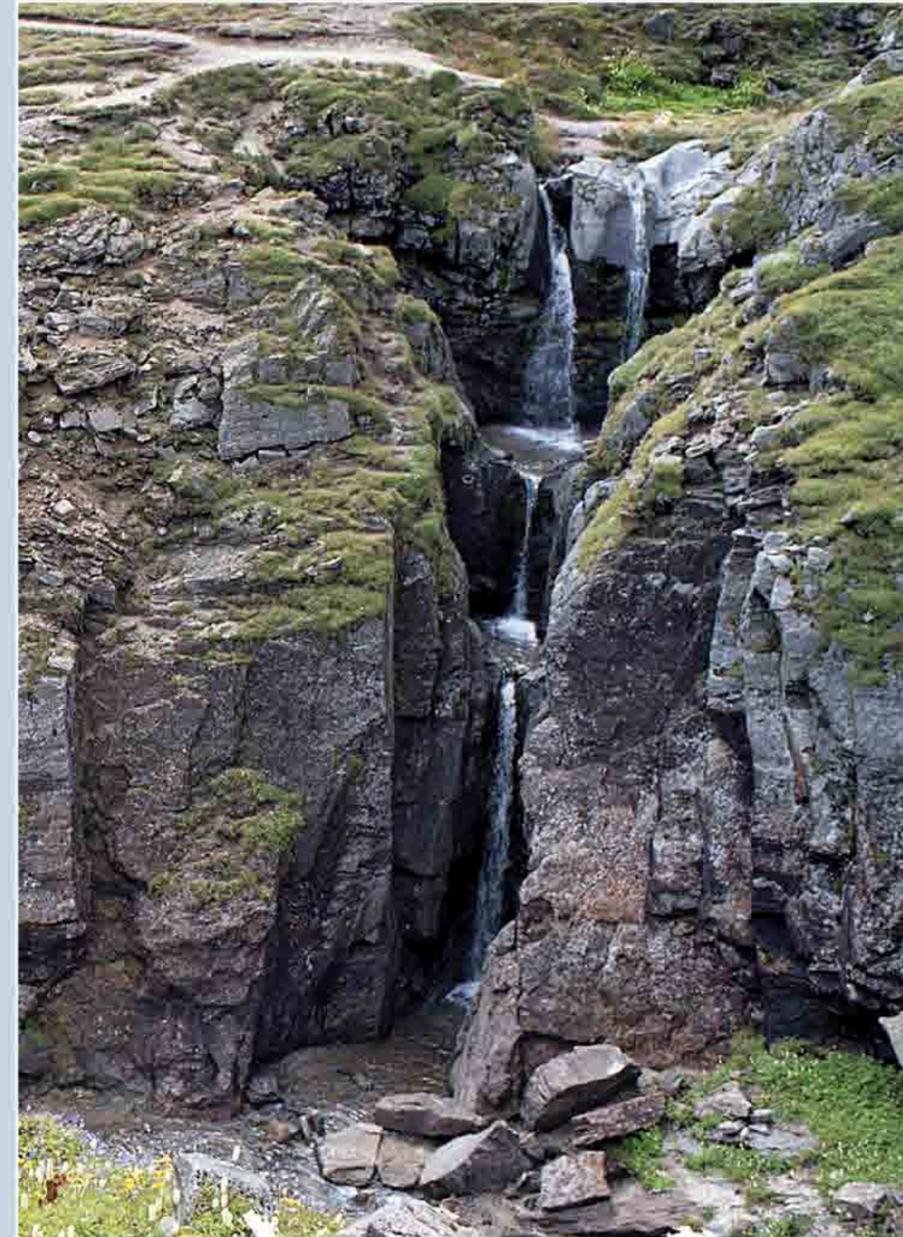
천지의 자연조화



영제폭포



백두폭포



사기문폭포





혁명의 성산 백두산

백두대지는 조선인민의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사가 어려있는
대로천혁명박물관이다.



1930년대 후반기와 1940년대 전반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지도에 의하여 백두산지구에는 백두산밀영과 이를 중심으로 사자봉, 곰산, 간백산, 소연지봉, 선오산, 무두봉, 압록강안, 대각봉, 쌍두봉 등지에 각이한 사명을 지닌 위성밀영들이 건설되게 되었다.

백두산지구 비밀근거지가 창설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과 당창건을 위한 사업, 조국광복회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반일대중투쟁, 전민항쟁준비 사업 등 전반적조선혁명을 이끌어나가는 중심적령도거점, 기본전략기지가 마련되게 되었다.



소백수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던
백두산밀영 사령부



사령부경위대원실





소백수골안의 대수림속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자리잡고있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의 설경



정일봉





백두산천지에 시원을 두고
압록강으로 흐르는 소백수는
백설이 덮인 겨울에도 얼지 않고
왕가물이 계속되는 여름철에도
마를줄 모르며 끊임없이 흘러
내리고있다.

소백수의 달밤

소백수의 여름





삼지연대기념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조선로동당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주체68(1979)년 5월 삼지연대기념비가 건립되었다.



삼지연대기념비의 부주제조각군상 《조국》편과 《흙모》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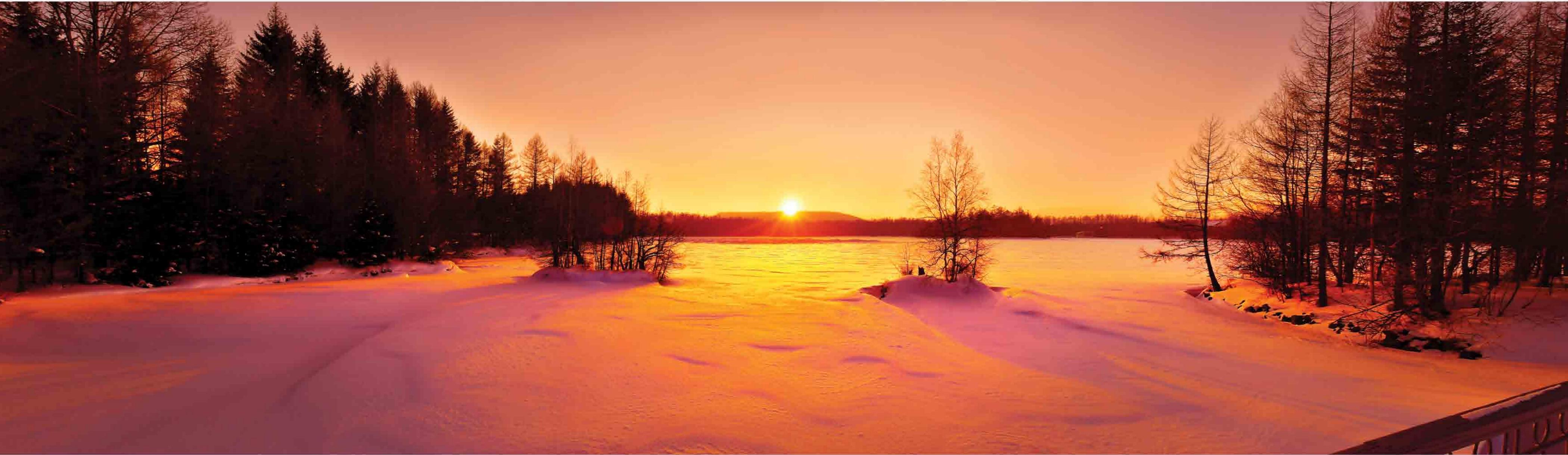


삼지연대기념비의 부주제조각군상 《조국의 물》편과 《진군》편



외대관 수관 정일성동지께서
1972년 6월 3일
외대관 영도사 김철인동지께서
1976년 7월 4일
기념사자를 받으시 구

삼지연못가의
겨울



삼지연못가의 저녁

삼지연

삼지연은 백두화산이 분출할 때 나온 용암이 이곳에 흐르던 강물을 막으면서 형성된 3개의 못이다. 삼지연의 변두리에는 이깔나무, 자작나무, 사스레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등이 울창한 원시림을 이루고 아득히 펼쳐져 있어 참으로 장관을 이루고있다.



삼지연의 가을



신사동혁명전적지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사자봉





사자봉밀영





사자봉의 가을



곰산밀영의 아침



선오산밀영



선오산의 신선바위



선오산의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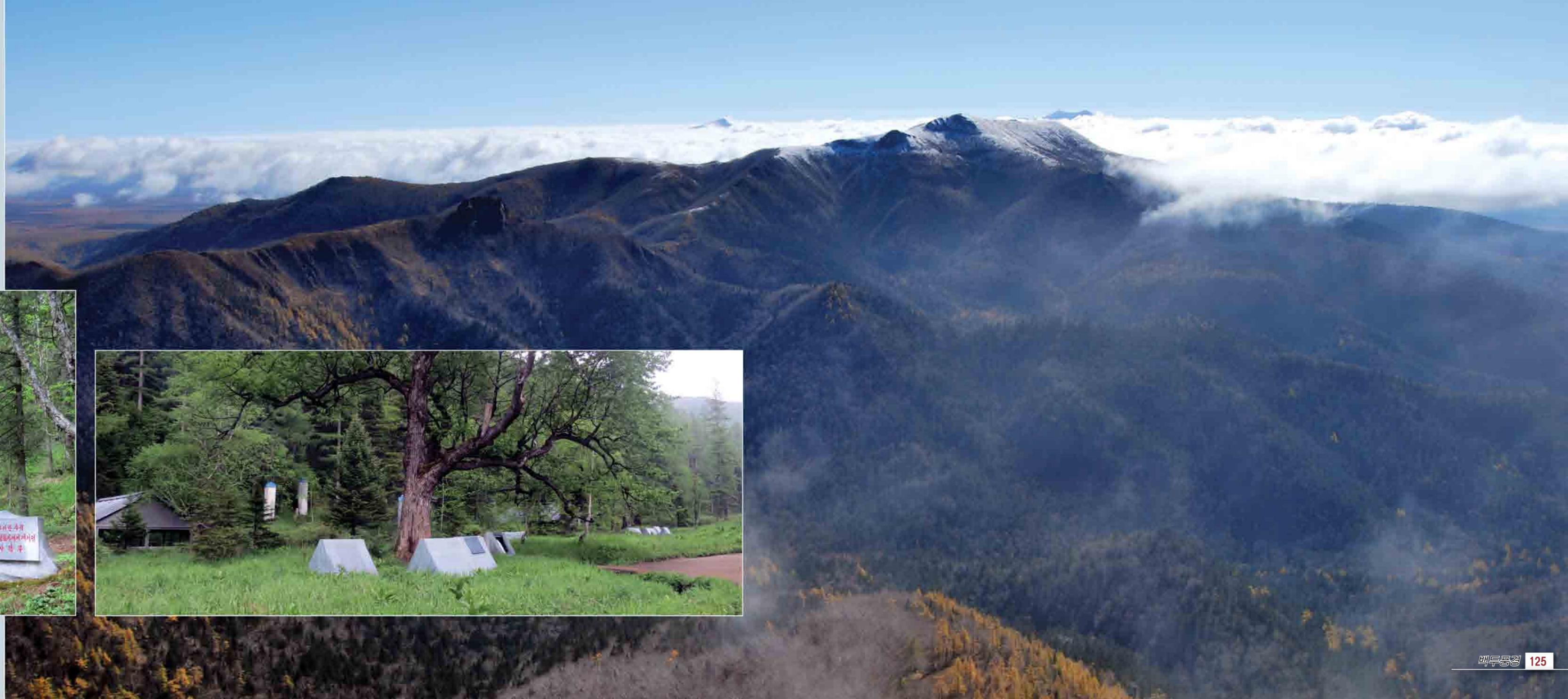
화산활동과 하천의 침식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기묘한 이 바위절벽은 1 000여명의 군사가 줄지어서있는듯 하여 천군바위라고 부른다.



천군바위

간백산

간백산밀영





소연지봉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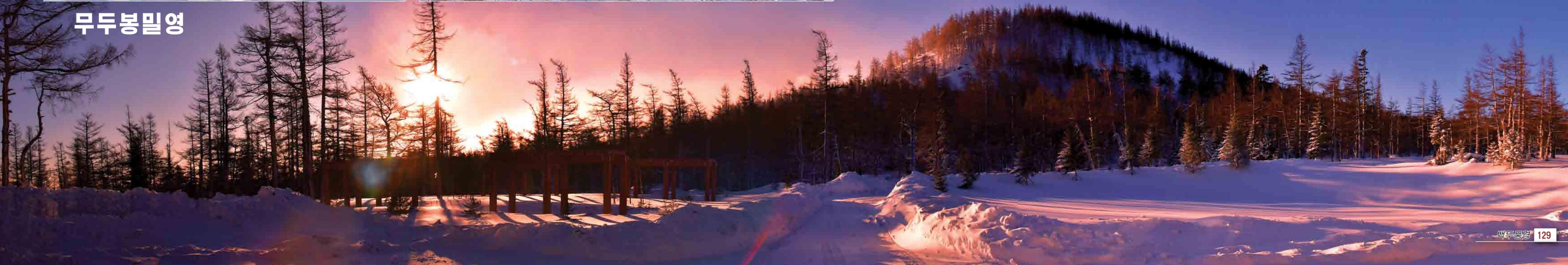
눈덮인 소연지봉





무두봉의 겨울

무두봉밀영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대각봉기슭



베개봉의 설경

베개봉숙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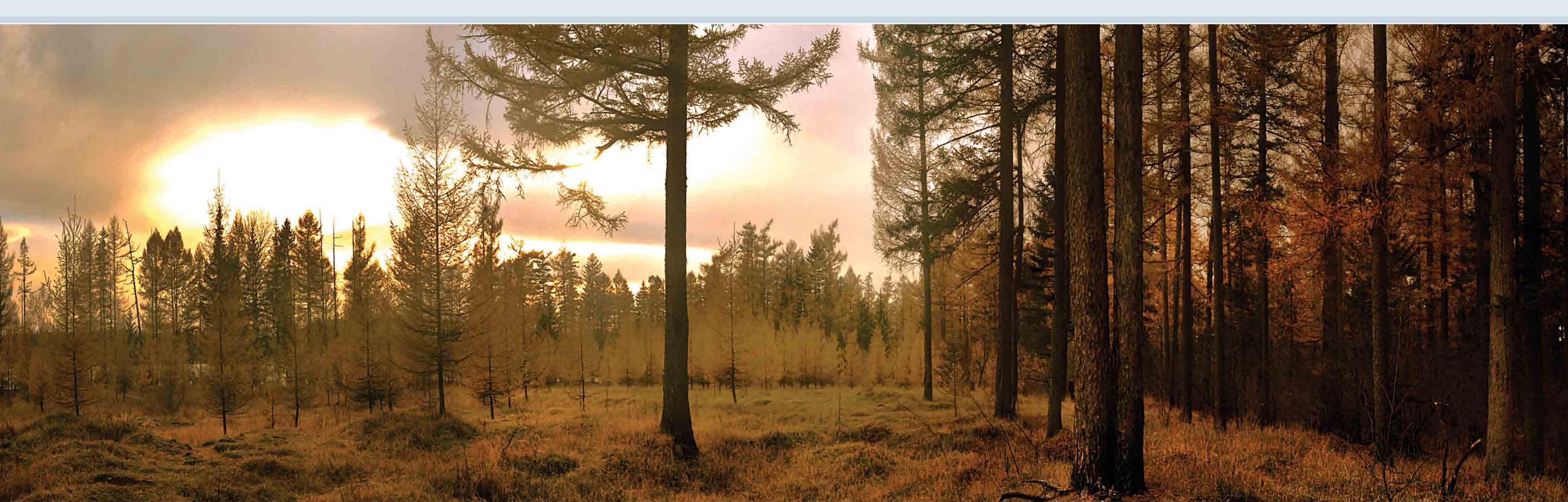




리명수의 서리꽃

남포래산





눈바람 몰아치는
겨울의 백두밀림



대흥단의 붉은 바위





안개흐르는 대흥단벌

백두대지의 산간문화도시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솟아있는 량강도의
삼지연시가 산간문화도시로 새롭게 변모되었다.





산간문화도시 삼지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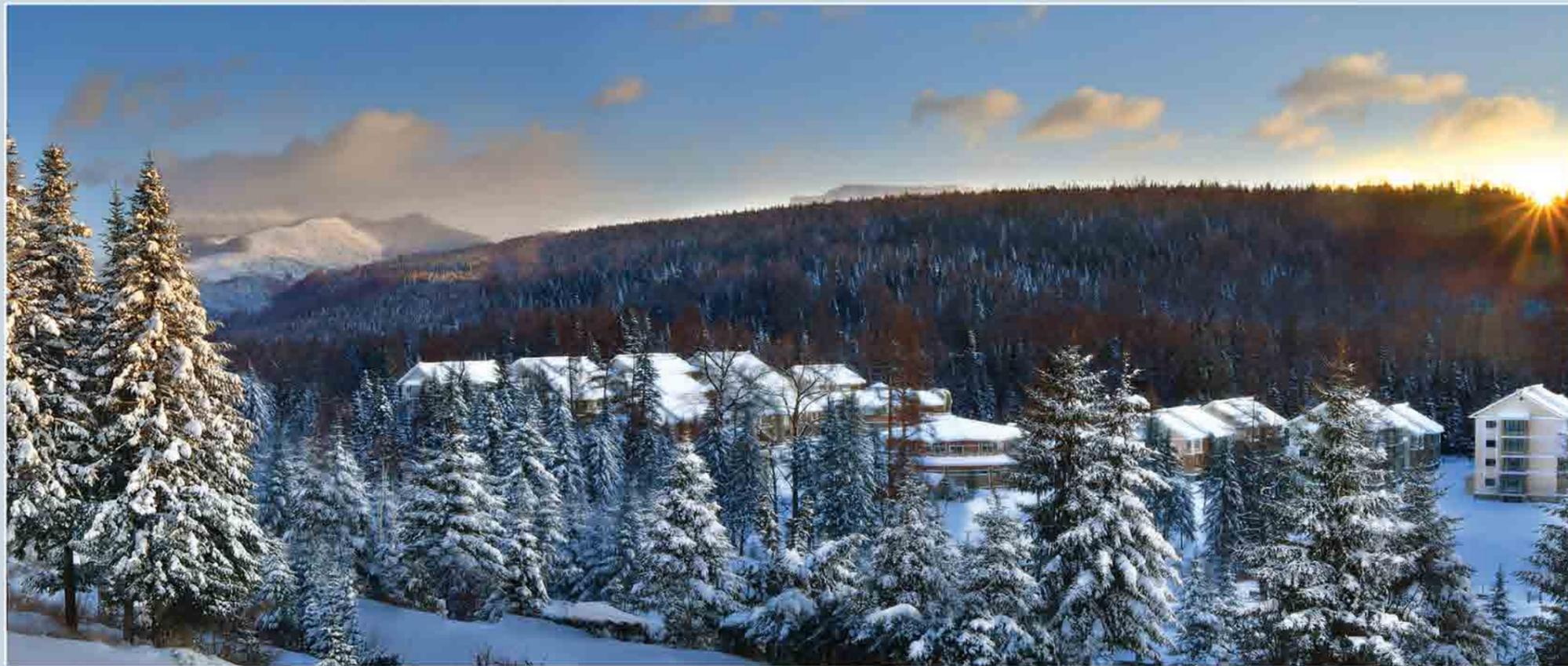








포레동



백두산밀영동





리명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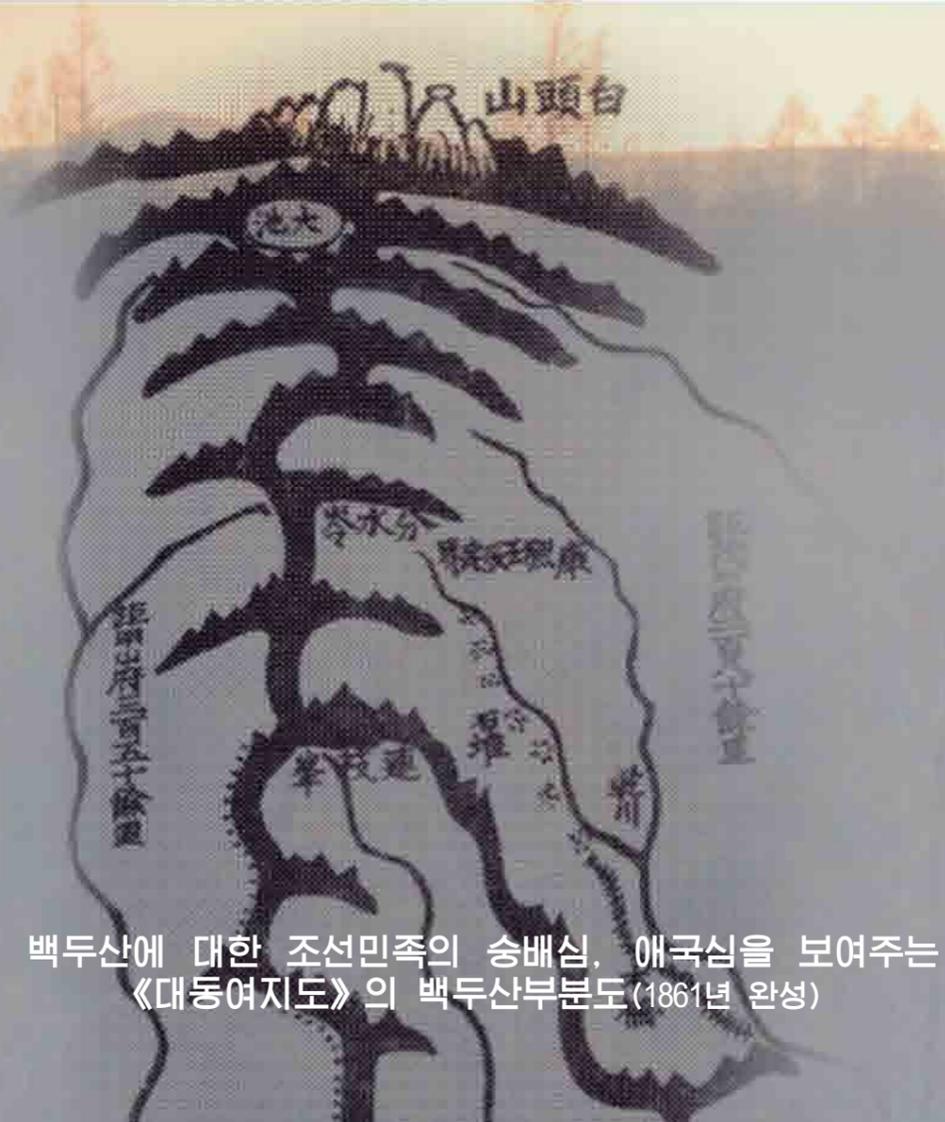


신무성동



보서리

백두산의 역사와 자연지리



백두산에 대한 조선민족의 숭배심, 애국심을 보여주는 《대동여지도》의 백두산부분도(1861년 완성)

백두산의 지명과 유래

백두산은 반만년 조선민족사의 발상지로서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여러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백두산》이라는 이름은 예로부터 사시장철 골짜기마다에 눈과 얼음이 쌓여있고 등성이마다에는 흰 부석이 덮여있어 항상 희게 보이는데다가 산이 하도 높아서 하늘을 떠받들고 온 천하를 굽어보는 거인의 머리와 같다는데로부터 유래되었다.

조선의 선조들은 이 나라의 모든 산줄기들이 백두산에 뿌리를 두고 삼천리에 뻗어내렸다고 하여 백두산을 어머니산으로, 조종의 산으로 불려왔다.

백두산천지의 명칭과 유래

백두산천지는 자연의 모든 풍치요소들을 다 안고있을 뿐아니라 천변만화의 신비로움으로 하여 지나간 역사에 전설도 수없이 남기였으며 세상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어왔다.

옛날부터 부르던 여러가지 이름들과 오늘의 《천지》로 불리우고있는 이름에는 높은 곳에 있는 호수라는 뜻과 큰 호수라는 뜻 그리고 신비로운 호수라는 뜻이 담겨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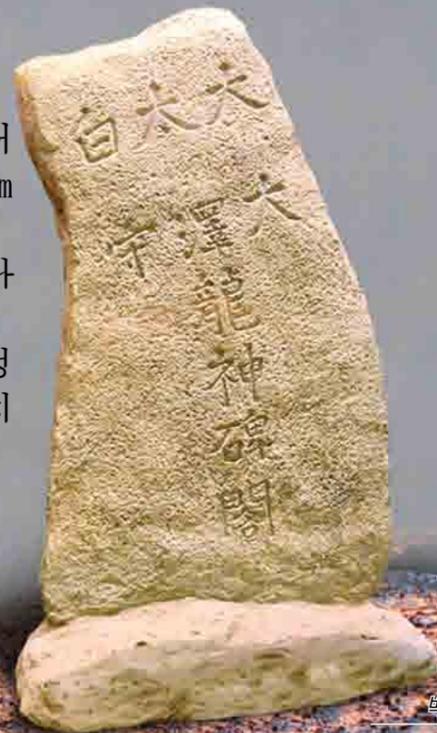
백두산에서 발굴된 옛 비석 《대래백 대택수 룡신비각》

백두산 장군봉소분지의 천지기슭 백두온천부근의 바위둔덕에서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에 세운 옛 비석이 발굴되었다. 비석은 높이가 120cm이고 너비가 44~58cm이며 두께가 10~11cm이다.

백두산분출암을 다듬어세운 이 비석은 백두산의 비바람, 눈바람에 풍화되었으나 글자획은 그대로 보존되어있다.

비문의 내용은 백두산을 지키는 천지의 《룡신》이 조선사람들을 무궁토록 안정하게 살도록 해줄것을 기원한것으로 인정되며 예로부터 천지를 영원히 차고넘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호수로 일러왔다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이 비석은 국보유적 제195호로 등록되었다.



백두대산줄기

총연장길이 1 470km
 평균해발높이 1 180m
 산줄기 8개

산 줄기 이름	길이	평균해발 높이
백 두 산 줄 기	140km	1 800m
부전령산줄기	280km	1 610m
북대봉산줄기	170km	1 120m
마식령산줄기	90km	1 010m
철령산줄기	70km	900m
태백산줄기	320km	1 040m
소백산줄기	310km	860m
지리산줄기	90km	940m

백두대산줄기의 주요봉우리들



량강도 삼지연시 백두산(2 750m)



량강도 백암군 두류산(2 309m)



강원도 천내군 두류산(1 323m)



강원도 세포군 추애산(1 528m)



강원도 회양군 철령(677m)



강원도(남) 린제군 설악산(1 708m)



충청북도 단양군 소백산(1 439m)



경상남도 함양군 지리산(1 915m)

백두산의 지리

백두산은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 사이 북부조선과 중국의 경계에 솟아 있다.

량강도 삼지연시에 속한다.

백두산의 지형

백두산의 특이한 자연경관은 여러 차례의 화산분출과 그 진화발전과정에 형성되었다.

백두산천지는 백두화산에 분화구가 이루어진 후 물이 고인 호수이다.

백두산마루는 2 000m이상의 높은 봉우리들이 60°이상의 급한 절벽을 이루면서 병풍처럼 천지를 둘러싸고 솟아 있다.

백두산의 쌍무지개

백두산에서는 쌍무지개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백두산에서는 비가 억수로 퍼붓다가도 순식간에 멎고 비구름이 하얀 송이 구름으로 변하여 이리저리 흩어진다.

이럴 때면 천지중심에 쌍무지개가 창공으로 피어오른다.

백두산의 쌍무지개는 천지에 피어올라 령봉으로 뻗치기도 하고 두 봉우리를 짙고 일어서는 등 특이한 모양새를 이루기도 한다.



백두산의 온천

백두산천지호안에는 3개의 화산성온천이 있다.

백두온천은 장군봉서쪽 호안기슭에 위치하고있는데 평균물온도는 53℃이고 중탄산나트륨천이다. 락원온천은 락원봉동쪽 호안기슭에 있는데 물온도는 52.5℃이고 중탄산나트륨천이다. 백암온천은 천문봉남서쪽 호안기슭에 있는데 물온도는 46℃이고 중탄산나트륨천이다.

백두산의 북쪽비탈면 천지폭포밑에는 장백온천이 있다.



백두산생물권보호구

백두산지구에는 주체78(1989)년 유네스코에 등록된 백두산생물권보호구와 함께 원봉호자연공원, 대흥동물보호구, 포태산동물보호구, 동계수산천어특별보호구, 백암간장늪식물보호구, 대흥단철쭉보호구를 비롯한 자연보호구들이 있다.





백두산천지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일부



백두산지구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일부



백두산지구에서 사는 동물들의 일부



백두산지구에서 사는 동물들의 일부



백 두 풍 경

편집 및 글 : 김명남

촬영 : 홍 훈, 변찬우, 공유일, 김성철, 송대혁, 김혁철, 홍광남
김용남, 리영남, 최철민, 리영일, 김영남, 강의성, 김충성

낸곳 : 외국문출판사

발행 : 주체111(2022)년 1월

ㄱ- 2181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국문출판사

주체111(2022)년

